



문인기자 박팔양의 생애와 언론활동:*

〈동아일보〉에서 〈로동신문〉까지

박용규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박팔양은 1924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후 12년 동안 일제강점기의 거의 모든 한글신문에서 활동했다. 신문사들의 경영부실이나 내분이 영향을 주었고 부당한 현실에 맞섰던 그의 성향도 작용해 여러 신문사를 옮겨 다녔던 것이다. 그럼에도 박팔양이 기자와 편집자로서 식민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활동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1937년에는 만주로 건너가 만주국 기관지 〈만선일보〉에서 근무했다. 광복 후에는 북한으로 가서 〈로동신문〉에서 활동했다. 그가 재직했던 〈동아일보〉, 〈만선일보〉, 〈로동신문〉 세 신문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삶이 얼마나 크게 요동쳐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만선일보〉와 〈로동신문〉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그는 ‘친일’과 ‘월북’이라는 두 가지 멩에를 짊어지게 되었다. 박팔양은 좌와 우, 항일과 친일, 남과 북, 숙청과 복권 등 식민지와 분단체제 속에서 파란만장하고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다. 만주행이나 북한행은 그에게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이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다.

핵심어: 박팔양, 문인기자, 동아일보, 만선일보, 로동신문

* 본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의 2017년도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ygpark@sangji.ac.kr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박팔양(1905~1988)은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인이자 기자였다.¹⁾ 그는 1923년 <동아일보>에 시를 게재하며 등단해 김여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시인이었으며, 1924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해 <조선중앙일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문사에서 활동한 언론인이었다. 또한 그는 다양한 문학단체, 사회단체에 참여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1937년에 만주로 건너가 친일 행적을 남겼고, 광복 이후에는 북한으로 가서 이념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인기자로써 박팔양은 다양한 사상적 편력과 활동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의 사상적 편력은 문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박팔양의 삶은 파란과 곡절 많은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한 지식인이 문인이자 기자로 활동하며 겪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적, 이념적 문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언론인으로서 그는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 등의 민간지에서 항일적 언론 활동을 하다가, 만주로 이주해 만주국 기관지 <만선일보>에서 친일적 언론활동을 했고, 광복 이후에는 북한에 가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서 활동하는 등의 변신을 보여 왔다.

월북 인사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박팔양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8년 월북문인 작품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이루어진 후 시인으로서의 박팔양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해졌다(유성호, 2009, 227쪽). 그의 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현실성에 치중하던 초기 작품이 후기로 갈수록 서정성에 무게를 두는 작품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채수영, 1990; 유성호, 2013). 그의 시의 경향을 카프계열의 시, 자연질서에 순응하는 생명의식 또는 이상주의적 시, 모더니즘 경향의 시 등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김은철, 1998). 박팔양의 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현실성을 강하게 드러내던 초기 시의 특성이 뒤로 갈수록 변화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단순히 시를 넘어서서 그의 삶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도 나왔다. 민족적 저항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던 서울시기, 친일 매체에서 활동했던 신경(新京)시기, 북한에서 생존했던 평양시기 등 박팔양의 ‘복잡다단한 삶’을 정리하며 20세기 한국 지식인의 정신사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있다(최삼룡, 2013). 그의 시에서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 내재된 지속적 측면을 밝히려는 연구도 나왔다. 이런 연구는 “자본주의 근대를 비판하는 카프적 경향이나 황폐하고 퇴폐적인 도시문명을 비판하는 모더니즘적인 경향” 모두 ‘반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곧 식민성의 결과이기도

1) 박팔양은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하여, 어려서 서울로 올라와 재동공립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경성법학전문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정지용 등과 <요람>이라는 등사판 문예동인지를 펴냈다(유성호, 2013, 6-7쪽).

하다고 주장했다(최윤정, 2015).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모두 박팔양이 문인기자였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 기자로서의 활동이 시인으로서의 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문학 분야의 박팔양 연구에서 언급된 그의 언론활동에 대한 내용 중에는 잘못된 사실들이 적지 않다. 이는 언론학 분야에서 박팔양의 기자로서의 활동을 전혀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 박팔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전혀 없고, 심지어 여러 언론인의 간단한 인물평을 모아놓은 책에서조차 그를 다루지 않았다.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활동했던 언론인 133명을 다룬 <한국언론인물사화> 8.15전편 상·하권(1993)에서도 박팔양은 빠져 있다. 아마 월북했다는 사실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88년에 작품에 대한 해금이 이루어져 문학 분야에서는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에도 1993년에 간행된 책에서 박팔양을 제외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에 근무했던 인물들에 관한 간략한 평을 모아 놓은 <조선일보 사람들>이 2004년에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6쪽에 걸쳐 박팔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도 박팔양이 거친 신문사의 이름이나 근무 시기조차 틀리게 나와 있을 정도로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팔양의 언론활동이 새삼 부각된 것은 북한에서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통해서였다. 이런 글들이 ‘북한 초대 정권’에 포함된 친일파라고 정리한 명단에 ‘로동신문 편집부장 박팔양이 포함되어 있다.’²⁾ 김일성대학 출신의 탈북자로 <동아일보> 기자인 주성하(2013)는 ‘너무도 유치한 북한 초대 내각 친일파 득세론’이라는 글에서 박팔양을 ‘북한 초대 정권’ 명단에 넣은 것 자체가 문제지만, 친일파라는 주장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팔양은 동아일보 기자도 지냈다. 일제 때 만선일보 편집부장이란 이유로 친일파면 솔직히 일제 때 언론인은 다 친일파가 된다. 박팔양이 쓴 진달래라는 시를 나는 외우고 다녔는데, 카프 작가 출신의 그의 시에는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이 묻어나온다. 나는 박팔양이 일제를 극력 칭송하는 글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를 친일파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은 박팔양이 문인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항일파 친일, 그리고

2) 주성하(2013)는 2013년 8월 13일자 <문화일보>에 이 명단을 포함한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8월 20일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 주성하는 광복절을 앞두고 ‘안보당국과 국제연구기관’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대한민국 및 북한 초대정권 구성 비교’라는 표를 다시 발표했고, <문화일보>가 이를 받아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성하는 이 명단이 ‘비교대상’이 다르고, ‘사실관계도 잘못된 ‘एं터리’라고 비판했다. 박팔양의 경우에는 ‘북한 노동신문 창간발기인, 노동신문 편집부장(일제 만선일보 편집부장)’으로 나와 있다. 근무한 신문사는 맞지만 직책은 틀렸다. 어쨌든 박팔양이 이 명단에 들어간 것은, 남한 출신으로는 드물게 창간 초기의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의 고위 간부를 지냈기 때문이다.

월북이라는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영터리’ 명단 속에 〈만선일보〉와 〈로동신문〉 단 두 단어로 규정되고 만 박팔양의 삶을, 언론활동을 중심으로 탐색하고 재구성해 보려는 것이다. 박팔양의 언론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의 언론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그의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 글은 박팔양의 언론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시기와 분단체제 형성기 한국 언론인의 역사적 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아가 20세기 질곡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였던 박팔양에 대한 연구는 ‘역사와 지식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 글은 박팔양이 1924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해 1949년에 〈로동신문〉에서 퇴사하기까지의 언론활동을 주된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기간 중 1939년 말부터 1945년까지의 6년 정도는 언론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언론계 활동기간은 20년 정도이다. 그의 문학활동을 서울 시기, 신경시기, 평양시기로 나눈 연구도 있지만,³⁾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기를 카프에서 탈퇴한 1930년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카프를 탈퇴하고 나서 문학활동뿐만 아니라 언론활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1924년부터 1930년까지는 신문사를 자주 옮겨 다녔던 시기이고, 1930년 이후부터 1936년까지는 〈조선중앙일보〉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한 시기이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는 만주로 이주해 만주국 기관지 〈만선일보〉와 협화회에서 활동했던 시기이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북한에서 노동당 기관지 〈정로〉와 〈로동신문〉에서 활동했던 시기이다.

이 글에서는 네 시기를 거치며 박팔양이 어떻게 언론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서 나타난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박팔양의 언론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한 번도 체계적으로 그의 언론활동을 다룬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민지라는 시대상황’과 ‘경영난 및 검열이라는 언론현실’에서 이루어진 박팔양의 언론활동은 어떤 특성과 의미를 지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일제강점기 기자들 중에 상당수는 박팔양처럼 문인기자였다. 일제강점기에 미디어는 지식인에게 ‘경제적 기회, 이념적 기회, 심미적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었다(이상길, 2010, 127-135쪽). 특히 문인들은 생계를 해결하고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

3) 박팔양의 문학활동 기간을 크게 서울시기(1923~1937), 신경시기(1937~1945), 평양시기(1945~1988)로 나누기도 한다(최삼룡, 2011). 문학활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등단한 192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모두 시기 구분에 포함한 것이다.

았다(박용규, 2005, 83-98쪽). 일제강점기 문인기자들 중에는 마지못해 언론계에서 활동했던 것만이 아니고 “기자라는 전문 직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경우도 있었다(조영복, 2007, 256쪽). 기자로서의 정체성 정도에 따라 활동방식이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당시의 문인기자들은 언론계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이글은 기자로서 활동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지만, 이런 언론활동이 문학활동, 단체활동, 강연활동 등의 다른 활동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고려하며 박팔양의 삶을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박팔양이 쓴 글이나 박팔양에 관해 다룬 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시인으로서의 박팔양을 연구한 논문들이 활용하지 못한 기자로서의 박팔양에 관한 자료들을 최대한 찾아 이용하고자 한다. 박팔양과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의 회고나 박팔양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긴 총독부 문서도 중요하다. 당시의 신문들은 물론이고, 〈신문총람〉, 〈한국언론연표〉 같은 연감과 연표도 박팔양의 근무경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서울시기 전기(1924-1930) : 잦은 신문사 이직과 비판적 언론활동

박팔양은 1924년 3월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조선신문〉 1924.3.21, 3면), 바로 다음 달인 1924년 4월에 〈동아일보〉에 입사하며 언론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배재고보 동기로 훗날 카프를 이끌었던 김기진이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실패했을 정도로 당시 〈동아일보〉 입사는 매우 어려웠다(김팔봉, 1978, 211-212쪽). 박팔양이 만 19세의 나이로 〈동아일보〉에 입사했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23년 5월에 〈동아일보〉 ‘현상당선 시’를 게재한 이후 여러 편의 시를 실었던 것이 발탁의 배경이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⁴⁾ 또한 입사 이후의 활동을 보면 이상협과의 인연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의 〈동아일보〉 재직은 짧게 끝나고 말았다. 1924년 4월에 송진우가 친일파 박춘금의 협박에 굴복한 것을 계기로 사원들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다(장신, 2006, 252-256쪽). 경영진과 대주주들은 사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924년 5월 17일에 일부 사원과 간부가

4) 박팔양이 1923년 5월에 박승만이라는 필명으로 현상공모에 당선하여 〈동아일보〉에 ‘신(神)의 주(酒)’와 ‘봄비’라는 시를 실었다고 하는데(〈동아일보〉, 1923.5.25, 5면), 박승만이 박팔양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추선진, 2011, 114쪽). 〈문장〉 1940년 1월호의 박팔양에 대한 소개에서 〈동아일보〉 현상 당선시 ‘신의 주’로 등단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김여수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 입사 전에 세 번 시를 게재했던 것을 보면(〈동아일보〉, 1923.9.30, 6면; 1923.11.4, 6면; 1924.2.11, 4면), 박승만이 박팔양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송기련, 1994, 20-21쪽).

퇴사했다.5) 박팔양도 입사 6개월만인 1924년 10월에 <동아일보>를 퇴사했다(<동아일보사사> 권1, 423쪽).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개혁운동 과정에서 퇴사했던 것은, 박팔양이 신문사 내의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팔양은 <동아일보> 퇴사 직후 혁신된 <조선일보>로 옮겨갔다. <동아일보>의 개혁운동 과정에서 이상협 계열의 기자들이 퇴사해 <조선일보>로 옮길 때 함께 이직한 것이다(박용규, 2009). <동아일보> 측에서도 박팔양 등의 퇴사에 대해 ‘이상협 계열이 이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동아일보사사> 권1, 235쪽). <조선일보>는 1924년 9월에 신석우가 송병준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민족주의 진영 신문으로 혁신되었고, 초기 편집진은 <동아일보>에서 퇴사한 이상협계 기자들과 홍증식을 통해 입사한 화요회계 기자들로 구성되었다.

<조선일보>로 옮겨와 그는 사회부 기자로서 경성지방방법원에 출입했다(<동아일보>, 1925.2.13, 3면). 아마 그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나왔다라는 점을 고려한 배치였을 것이다. 그는 1925년 7월의 ‘낙동강 대홍수’ 당시 현장 취재를 갔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사회부 기자란 언제든지 긴장한 공기 속에서 사는 사람”이며, “전쟁 마당에 나선 병졸이나 장교와 같이 몹시 긴장한 의식을 가지고서 그날그날 일어나는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을 요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팔양, 1927b, 29쪽).

<조선일보>는 1925년 9월에 ‘조선과 노국와의 정치적 관계’는 사실로 인해 정간을 당했는데, 총독부는 정간 해제의 조건으로 사회주의 기자들의 해고를 요구했다. 1925년 10월 정간 해제를 둘러싸고, 신석우계, 이상협계, 화요회계 간 다툼이 있었고, 이상협계와 화요회계 기자 17명이 신문사를 떠났다. 박팔양은 이상협계인 사회부장 김형원이 <조선일보>를 떠나면서 그를 이어 ‘사회부장 사무취급’이 되었다(京鍾警高秘 12162호의 1(1925.10.26.)). 그는 1926년에도 계속 사회부장 사무취급을 맡았다(<신문총람> 1926년판, 491쪽).

<조선일보> 최초 여기자였던 최은희(1935)는 당시의 박팔양을 ‘사회부 명장’이라고 언급하며 중요한 취재과정에서 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했다(52쪽).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시절의 박팔양에 대해 유광열(1932)은 “성격이 평온하니까 편집에도 온건침착”(54쪽)하였다고 평가했다. 박팔양은 문인기자임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시절에 줄곧 학예부가 아닌 사회부에

5) 사원들이 사표를 내고 파업을 하다가 새로 취체역(取締役: 오늘 날의 이사)으로 들어 온 허현의 설득으로 복귀했는데, 7명의 사원과 간부들은 철회하지 않아 1924년 5월 17일에 사표가 수리되었다. 7인은 조사부장 김동성, 사회부장 유광열, 지방부장 김형원, 정리부장 최영목, 정치부장 민태원, 기자 이서구와 박팔양이었다(장신, 2006, 270쪽). 그러나 이들 중에 박팔양은 이때 퇴사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 뒤인 10월에 퇴사했다. 입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사표가 수리되었다가 복귀했던 이유는 알 수 없다.

근무했다.

1926년 11월에 이상협이 <중외일보>를 창간하자 박팔양은 다시 신문사를 옮겼다(서범석, 1978, 187쪽). 1926년 8월 경에 <조선일보>에서는 부장들이 중심이 되어 무책임한 경영진에 대해 항의하는 파업을 벌였고, 그 결과 정치부장 이상철이 권고사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상철은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창간된 <중외일보>에 입사했다(<한국일보>, 1976.2.8, 4면; 1976.2.10, 4면). 박팔양도 이상철과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경영진에 대한 불만과 이상협과의 인연이 작용해 <중외일보>로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중외일보>로 옮겨가 그는 주로 편집부에 근무했다. 그는 “근래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회부 외근보다는 내근 편집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하며, 기자생활이 ‘유쾌한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싫증날 때도 있다고 밝혔다(박팔양, 1927b, 29-31쪽). 기자로서의 생활이 보람되지만 힘들기도 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 박팔양(1928)은 편집부에 근무하며, “한글을 자랑함으로써 한글을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우리들의 문학-더 넓혀 문화를 건설”(41쪽)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편집부 기자이자 시인으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한 것이었다.

<조선일보>와 <중외일보>에 근무하던 시절 박팔양은 활발하게 시를 썼다. 박팔양(1990)은 스스로 “나의 시 창작 공부는 내가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기자 생활을 시작하던 그 시기로부터 의식적으로 진행되었다”(126쪽)고 회고했다. 1920년대에 주로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던 “그의 신문기자로서의 감각은 새로운 시대 이념을 통해 도시의 풍경을 조망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노래”하는 시를 낳았다(남기혁, 2009, 237-238쪽). 비판적 언론활동을 하던 1927년 후반에는 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현실에 대한 울분이나 소극적인 저항의식에서 분명하게 목적의식을 지니기 시작”했던 것이다(김재홍, 1990, 80쪽). 이런 경향은 1920년대 말까지 계속되어, “현실을 보다 계급적인 모순 속에서 파악하여 계급의식의 고취와 미래지향적이며 낙관적인 시세계”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들었다(류만, 1995, 72-73쪽).

박팔양은 ‘공장’(1926.10), ‘데모’(1928.7) 등의 시로 식민지 현실을 비판했고, <조선문단> 1927년 1월호에 실린 ‘윤전기와 사층집’이라는 시에서 언론의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 관점을 드러냈다.

C

벽돌 사층집 높다란 집이다

시커먼 기(旗)란 놈이

지붕에서 춤을 춘다

옛다 받아라! 증오의 화살
네 집 뒤에는 윤전기가
죽어 넘어져 신음한다

E

곤죽, 뒤죽, 박죽
인생은 두루뭇수리한 놈이다
벽돌 사층 직선이 사선이오
과로와 더위로 테어 죽은 윤전기의
거대한 시체에
구더기 구더기가 끓는다(유성호, 2009, 50-51쪽).

위의 내용은 전체 6연 중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연이다. 이 시는 “사회현실에 대한 조소적(嘲笑的) 모티프를 축으로 하면서 시적 관행을 벗어나는 의미론적 해체”를 했다고 평가받았다(유성호, 2009, 205-206쪽). 이러한 평가에서 언급한 ‘조소적 모티프’란 신문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이 시에 대해 “아나키즘의 정치적 색채가 분명히 가미”되어 있고, “한 시간에 십만장 씩 글을 박아내던 윤전기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은 시체위에 구더기가 끓는 장면은 그야말로 혁명 전야의 풍경”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안지영, 2014, 86-88쪽) 특히 ‘과로와 더위로 테어 죽은 윤전기’ 같은 표현은 기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이 시는 박팔양이 기자가 아니라면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박팔양은 1925년 5월에 벌어졌던 사회부 기자들의 모임인 철필구락부의 임금인상 투쟁을 “조선에 드문 문필노동자의 노자(勞資)투쟁”이며 “계급의식에 각성한 경성 신문기자들의 증급(增給)운동”이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봉급생활자 또는 문필노동자들도 위태위태한 자기네들의 생활을 위하여 어떠한 단결을 할 필요를 느낀다. 남의 고용살이의 비애도 비애려니와 사령서 한 장에 등을 발길로 채이듯이 가로(街路)로 쫓겨 나가면 여유 한 푼 없고 그들의 갈 곳이 어디인가 육체노동자보다도 어느 의미로 보아도 비참한 것이 있다. 봉급생활자동맹 또는 문필노동자동맹, 원고생활자동맹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그들의 이익과 생활안정의 방도를 연구함도 좋을 것이다(박팔양, 1927a, 192-193쪽).

그는 실제로 1924년 11월에 결성된 사회부 기자들의 모임인 철필구락부에 참여해 적극적

으로 활동했고, 기록에 나타난 이 단체의 마지막 행사인 ‘고 박순병 일주기 추도회’에서도 안재홍, 강호 등과 함께 박순병을 회고하는 발언을 했다(京鍾警高秘 9595호(1927.8.29.)). 그가 이렇듯 문필노동자인 언론인들의 비애를 얘기하고,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 조직을 거론했던 것은 여러 신문사를 거치며 경험한 일들 때문이었다. 그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시절에 내분과 경영난을 경험했고, 이 글을 쓴 <중외일보> 시절에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렇듯 신문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동시에 식민지 현실에서 신문의 저항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기도 했다.

피압박층의 제 운동을 사실 있는 대로 보도하는 것은—물론 당국으로부터 허락된 범위 안에서—나의 유쾌한 일중 하나이다. 민중에게 보도하여야 할 사실을 보도치 못하는 곳에 우리들의 고통이 있다. 그럼으로 허락된 범위 안에서 피압박층의 제 운동을 어느 정도까지 명쾌하게 보도할 수가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유쾌를 느낀다. 이는 피압박층의 1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진 자의 당연한 감정이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쾌와 통쾌는 다르다. 그것은 유쾌일 뿐이요 통쾌는 되지 못한다. 거기에서 일보를 더 나아가서야 우리는 통쾌에 도달한다. 피압박층의 일부분 내지 일분자가 정규의 어떤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발작적으로 ‘히스테리컬’하게 반항의 소리를 지르는 때가 있다. 또 불의의 압박에 대한 돌발적 폭행이 일어날 때가 있다. 소위 ‘의분’에서 일어나는 행동! 그것은 아무에게도 통쾌미를 갖게 하는 것이다(박팔양, 1927c, 44쪽).

박팔양은 “피압박층의 제 운동을 어느 정도까지 명쾌하게 보도”할 때 ‘유쾌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도는 ‘유쾌일 뿐이요 ‘통쾌’는 아니라고 안타까워했다. 신문이 민족운동에 대해 제대로 보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1927년 10월에 박팔양은 “봉건적 소시민적 일체 관념의 극복을 기함”을 목표로 한 ‘조선전위기자동맹’의 결성에 참여했다(<동아일보>, 1927.10.29, 2면). 조선전위기자동맹은 ‘의식분자들을 망라’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별 다른 활동을 하지는 못했다.

<조선일보>에 처음 근무하던 시절부터 박팔양은 사회주의단체나 문학단체에서 활동했다. 당시 사회주의단체로는 화요회, 북풍회, 서울청년회 등 세 단체가 있었는데, 박팔양은 서울청년회에 참여했다. 그는 1925년 1월 11일에 열린 서울청년회 제4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전명혁, 2006, 260-261쪽). 또한 1925년 8월에 결성된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에 참여했다(김팔봉, 1988, 146쪽). 이후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서울청년회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던 듯하지만,⁶⁾ 반면에 카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로 참여해 1930년까지 계속 활동했다. 카프 참여는 시인으로서는 물론 기자로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25년부터 어린이날 준비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기도 했다(〈동아일보〉, 1925.4.23, 3면; 1927.4.6, 3면).

박팔양은 〈중외일보〉로 옮긴 이후 활발한 강연활동을 했다. 박팔양은 1926년 11월 18일에 문예운동사가 주최하고 〈조선일보〉가 후원한 ‘문예대강연회’에서 강연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계속 강연활동을 했다(〈조선일보〉, 1926.11.11, 3면). 그는 1927년 5월에 문예시대사에서 개최한 문예강연회에서 ‘신흥문예의 제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동아일보〉, 1927.5.5, 7면). 1927년 10월에는 창간준비 중에 있던 ‘신문 및 신문기자사’⁷⁾ 주최로 열린 신문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다(〈동아일보〉, 1927.10.17, 2면). 1927년 11월에는 평양전문학교 문과생 연문회(研文會) 주최로 열린 문예강연회에서 ‘문예사조의 변천’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중외일보〉, 1927.11.2, 4면). 그에게 강연은 문학이나 사회에 대해 발언하고 대중을 계몽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연활동에 열정을 보인 그의 강연에 대해 “자기의 체구가 작은 것을 인식하고서 일종 위엄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듯한 자세, 음성, 표정”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다(〈별건곤〉, 1927.2, 101쪽)

박팔양은 1928년 중반에⁸⁾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와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다(〈신문춘추〉 1928.9, 49쪽). 〈중외일보〉가 창간 직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서 1928년 봄 무렵에는 “한 달의 봉급의 몇 분의 일이라는 적은 금액을 겨우 얻어가는 전 사원의 생활은 늘어나는 채무의 이자와 같이 점점 곤역(困域)에 빠지게 되어 그 비참은 다시 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 문에(서경학인, 1931, 5쪽)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왔을 것이다. 〈조선일보〉로 돌아온 이후 박팔양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이미 사회부장 역할까지 했던 그는 〈조선일보〉에 돌아와 3년 가

6) 박팔양은 자신이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피선되었다는 〈동아일보〉의 1925년 1월 14일자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 착오’라고 하며 취소신청을 했다(〈동아일보〉, 1925.1.20, 3면). 박팔양의 집행위원 선출 기사는 〈시대일보〉 1925년 1월 14일자에도 실렸고, 그가 재직하던 〈조선일보〉에만 실리지 않았다. 박팔양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그가 기사 취소까지 요구했던 것을 보면, 그가 서울청년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서울청년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동아일보〉 기자 임봉순이 1928년에 결혼할 때 박팔양이 신랑측 들러리를 섰던 것을 보면(최은희, 1969, 153쪽), 서울청년회 회원들과 일정한 교류를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7) ‘신문 및 신문기자사’는 뒤에 ‘신문춘추사’로 이름을 바꾸고 〈신문춘추〉를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신문강연 내용들 중에 〈신문춘추〉에 실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8) 〈조선일보〉는 1928년 5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정간을 당했다. 박팔양이 1928년에 〈조선일보〉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신문춘추〉를 들 수 있다. 〈신문춘추〉가 1928년 9월에 창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1928년 8월까지 수집된 것들이다. 정간 중에 기사를 새로 뽑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팔양은 1928년 5월 이전에 이미 〈중외일보〉에서 〈조선일보〉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크다.

량 사회부 또는 편집부 평가자로 있었다.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조선일보>를 떠났던 전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박팔양은 단체활동이나 강연활동을 계속했다. 박팔양은 1928년 7월 27일에 개최된 카프 중앙위원회에서 전국대회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다(<중외일보>, 1928.7.29, 2면). 그는 1929년 3월 6일 열린 카프 긴급중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보선되고 조직부를 맡았다(<동아일보>, 1929.3.8, 3면). 그러나 1년 정도 지난 1930년 4월 20일에 열린 카프 중앙위원회에서 박팔양의 위원 '사임수리'가 결정되었다(<중외일보>, 1930.4.22, 석간 2면). 카프의 '불세비키화로의 2차 방향 전환'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팔양이 카프를 떠났던 것이다(송기런, 1994, 22쪽). 그는 1928년 8월에는 삼팔청년회⁹⁾ 임시총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단체는 빈민아동 구제 등을 위한 일종의 봉사단체였다(京鍾警高秘 9592호(1927.8.29)). 언론인으로서의 의례적 참여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박팔양이 어린이날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빈민아동 구제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그의 인간적 면모를 어느 정도 엿보게 하는 것이었다.

1928년 2월 6일에는 카프 평양지회 설립대회에서 연설을 했고(<동아일보>, 1928.2.10, 4면), 6월 16일에는 카프 개성지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지국이 후원한 문예강연에서 '현대생활과 현대문예'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동아일보>, 1928.6.19, 3면). 1929년 5월 11일에는 카프 수원지부에서 '근대 예술사조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동아일보>, 1929.5.16, 3면). 탈퇴 이전까지 카프가 개최한 강연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다. 1928년 10월 13일에는 문예가협회 주최의 강연회에서 염상성, 주요한 등과 함께 강연을 했고(<조선일보>, 1928.10.15, 석간 3면), 1929년 6월 1일에도 문예가협회 주최 문예강연회에서 '대중문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조선일보>, 1929.6.3, 석간 3면). 카프에서 탈퇴한 1930년에는 강연활동을 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3. 서울 시기 후기(1930-1936) : <조선중앙일보> 사회부장으로서의 활동

카프를 탈퇴할 무렵 박팔양은 <조선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박팔양은 “나라는 인격

9) 삼팔청년회는 삼청동과 팔판동의 청년들로 1924년에 7월에 조직된 단체였다(<동아일보>, 1924.7.20, 3면).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으로 부족한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한 수도자와 같이 일생을 두고서 이 점에 대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 노력은 나의 죽는 날까지 계속되겠지요”라고 고백했다(〈별건곤〉, 1930.5, 62쪽). 이와 같은 고백은 카프 탈퇴 전후 다소 위축된 그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주로 편집기자로 활동하던 박팔양은 언론문장에 관한 나름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신문문장을 잘 쓴다는 것은 일종의 전문적 기술이다. … 신문문장은 첫째 간결하여야, 둘째 명쾌하여야, 셋째 독창적이어야, 넷째 문장에 매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팔양, 1930, 15쪽). 또한 그는 잡지 〈삼천리〉의 가십 기사를 문제 삼아 쓴 글에서 박팔양은 언론의 선정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의미의 저널리즘의 공로는 크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 근대문화 각면의 장족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은 확실히 저널리즘의 공로다. 그러나 반면에 저널리즘이 약간의 폐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니 신비의 침단에 사는 근대인으로 한 개의 극히 경박한 ‘가시퍼’(gossiper)가 되게 하는 것이나 또는 그들로 하여금 ‘넌센스’나 ‘그로테스크’ 취미로 달음질치게 하는 것도 말하자면 근대 저널리즘의 죄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저널리즘의 공과는 서로 상반하다 할 수 있는 바, 요는 그 저널리즘을 운용하는 사람의 태도의 여하에 있다 할 것이다(박팔양, 1931).

이런 비판은 잡지 〈삼천리〉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1930년대 들어서서 상업주의 경향을 보이며 치열하게 경쟁하던 신문을 문제 삼은 것이기도 했다. 박팔양은 1931년 봄 경에 〈조선일보〉의 지방부장을 맡았다(〈한국언론연표〉 I, 582쪽). 당시 한 잡지에 서는 “현재 조선일보 지방부장 자리에 있는 박팔양씨, 아직 나이는 멀었다 해도 사회부기자로는 늙었다고 해도 별 변명은 없겠지. 본시 체구가 암전히 적은데 나이까지 연소하여 (법전(法專)을 나와서) 재판소 출입할 때 ‘애기 기자’란 별칭을 들었다 한다. 너무 일찍이 과도한 일(편집)을 한 까닭이다”라고 평가했다(〈혜성〉, 1931.7, 61쪽). 그가 이른 나이에 기자가 되어 사회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931년 7월 경에 〈조선일보〉 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신석우와 최선익이 물러나고 이승복과 안재홍이 실권을 장악하자, 박팔양 등 9명의 사원이 신규 간부의 타협을 요구하고 경영의 혁신을 요구했다. 1931년 8월 29일에는 8명의 사원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퇴사했고, 7명은 ‘봉급 지불’ 소송까지 제기했다(정태철, 1931, 21쪽).

1. 봉급 적년(積年) 부분(不拂)로 생활의 극도 곤란.
1. 현 간부가 사원에 대하여 무성의할 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도 없는 줄로 인함으로 사(社)의 장래를 비관함.

이승복과 안재홍 측에 서서 활동했던 김기진은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능한 직원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김필봉, 1988, 157-158쪽). 아마 이 명단에 들어가 있던 직원들이 바로 경영 혁신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퇴사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박팔양은 <동아일보>, <중외일보>에 이어 다시 한 번 사내 권력 다툼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문사를 떠나야만 했다.

박팔양이 <조선일보>를 퇴사해서 노정일이 판권을 인수해 새로 출범한 <중앙일보>의 사회부장이 되자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 있다가 요전에 10여 사원이 동맹 퇴사할 때 같이 나온 박팔양씨는 이번에 또 중앙일보 사회부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중외와 중앙이 이름은 다르지만은 낙엽기근 격으로 환 고향하였다”고 평가했다(<별건곤>, 1931.12, 12쪽). 박팔양이 <중외일보>에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외일보>의 판권을 이어받은 <중앙일보>에 입사한 것을 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한 것이다. 당시 한 잡지는 박팔양에 대해 “키는 작지만은 신문사의 사회부장 자리는 팔자에 타고난 듯이 항상 차지하고 있으니 가위 단장상보(短長相補)”라고 주장했다(관상자, 1932, 116쪽). 그가 키가 작고 얇았기 때문인지 당시에 “가냘픈 얼굴이나 적게 생긴 체격 또 얇전해 보이는 점이라든지 누구나 얼핏 보아도 문사(文士)라고 할 만하였다”는 평가도 나왔다(여기자, 1932, 103쪽).

박팔양과 함께 <조선일보>를 퇴사했던 배성룡은 경제부장, 유광렬은 지방부장, 이흥직과 이풍규는 정리부 기자가 되어 <중앙일보>에서 함께 활동했다(청광, 1931, 106쪽). <중앙일보>의 편집국장 강매는 배재고보 교사 출신으로서 노정일과의 인연으로 언론계 경력이 전혀 없이 편집국장이 되어서 “교원 생활 20년에 월약(越躍)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조선신문사에 특기할 소재”라는 평가를 들었다(관상자, 1932, 119쪽). 박팔양과 학예부장을 맡은 박영희는 배재고보 출신으로 강매로부터 배운 바 있었다. 박팔양은 1932년 4월에 지방부장이 되었다(<중앙일보>, 1932.4.2, 석간 1면).

최선익과 윤희중이 노정일로부터 <중앙일보>를 인수한 직후 박팔양은 잠시 편집부 기자가 되었다가(<중앙일보>, 1932.10.31, 1면), 1932년 12월에 다시 사회부장이 되었다(<중앙일보>, 1932.12.11, 3면). <중앙일보>는 1933년 2월에 여운형을 사장으로 맞이들였고, 1933년 3월에 제호도 <조선중앙일보>로 바꾸었다. 박팔양은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줄곧 사회부장

자리를 지켰다. 당시 한 비평가는 “박씨는 벌써 신문인으로서 상당히 역사가 길다. 옛날 조선일보의 학예부장을 지냈고, 10) 중앙일보에서 사회부장, 지방부장을 역임하고 또 현재에 사회부장의 의자에 있는 만치 기쁨이 날 데로 났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시인이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했다.

기왕 박씨의 말을 하는 길이니 한 말 더할 것은 8월 1일 반전(反戰) 데이에 세 신문이 모두 기사를 취급하였는데 동아와 조선은 반전이란 문자를 그냥 쓰고 중앙만은 반〇이라고 쓴 것은 박씨의 소심한 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실례의 말을 하여 두고 싶다(〈신조선〉, 1934.5, 47쪽).

사회부장인 박팔양 때문에 〈조선중앙일보〉가 소극적인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조선중앙일보〉는 당시에 “때때로 남이 취택(取擇)하지 못하는 재료를 취급하여 일세를 놀래는 일”이 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차별성을 보였다(황태욱, 1935, 20쪽). 특히 사회면에서 친일파인 “박희도, 최린 등의 추잡한 행장에 대한 날카로운 단죄의 필봉”을 보였다(여운홍, 1967, 96쪽). 〈조선중앙일보〉가 다른 신문에 비해 다소나마 더 비판적 논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기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지만(박용규, 1996, 137-141쪽), 사회면을 총괄하던 사회부장 박팔양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언론통제가 강화되어 최소한의 비판조차 어려웠던 현실에서 사회면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부와 편집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박팔양의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된 결과였다는 것이다.

〈조선중앙일보〉 학예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소설가 이태준(1988)은 1936년에 쓴 ‘장미’라는 소설에서 “선미(禪味) 다분한 여수(麗水)가 사회부장 자리에서 강도나 강간기사 제목에 눈살을 찌푸리고 앉아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비극이다”(25쪽)라고 하여, 현실을 초월한 듯한 자세로 사는 시인 박팔양이 사회부장으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상업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던 1930년대 “신문사 사회부장은 ‘사건’을 ‘취재 사건’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닌 ‘흥미 있는 읽을 거리’로 만드는 마법사, 주술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다면(조영복, 2007, 141쪽), 박팔양이 이런 역할에 잘 맞지 않는다고 이태준은 보았던 것이다.

박팔양은 카프를 탈퇴할 무렵인 1930년 4월 〈학생〉지에 ‘너무도 슬픈 사실-봄의 선구자 진

10) 박팔양이 〈조선일보〉 학예부장을 지냈다는 것을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다. 단지 〈조선일보〉에서는 사회부장 사무취급과 지방부장을 지냈을 뿐이다.

달래를 노래함'이라는 시를 실었다. 그는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봄의 선구자”라고 하며 “날더러 진달래꽃을 노래하라 하십니까?”라고 반문했다(유성호, 2009, 73쪽). 겨울을 이기고 피는 진달래꽃은 곧 식민지 현실에서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선구자’들을 의미했고, 이 시는 해방의 염원을 표현하는 동시에 ‘가난인 시인’인 자신이 해방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었다.¹¹⁾ 그는 1930년대 이후 “프로 시의 예술운동적 차원과는 거리가 있는 그 특유의 서정시편 곧 자연형상화를 통한 시들을” 썼지만(유성호, 2013, 17쪽), 그의 시에서 여전히 식민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이다.

박팔양은 1934년을 맞아 “새해에는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아름답게 굳세게 표현하여 줄 작가가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조선문학〉, 1934.1, 106쪽). 그는 1934년 1월 11일부터 5월 6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정열의 도시’라는 소설을 103회에 걸쳐서 연재했다. 박팔양은 ‘신소설 예고’에서 “독자 제씨에게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은 많은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쓴다고 밝혔다(〈조선중앙일보〉, 1934.1.4, 4면). 이 작품은 ‘연애와 사회운동을 병행하는 공우회 활동’, ‘〈건설사〉 동인들의 배타적인 농촌운동’, ‘이념적인 XXXX(사회주의: 필자)당 운동’ 등 세 가지 유형의 사회운동을 소개하며, 공우회 활동을 높이 평가하되 다른 두 운동에 대해서도 나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강진호, 1996, 385-387쪽). 박팔양이 카프의 계급적 성격 강화에 반대해 탈퇴했던 만큼 다소 유연한 사회운동에 호의를 표하면서 다른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박팔양은 이태준의 권유로 1934년 6월에 ‘9인회’에 가입했다(조용만, 1971, 345쪽). “구인회는 반카프적 성격을 지니고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모임”(추선진, 2011, 115쪽)이었기 때문에 박팔양의 구인회 참여는 그의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카프와 대척적인 입장에 선 구인회에 가입하게 된 배경에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박팔양의 문학적 열정과 정지용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김낙현, 2002, 261쪽). 이태준의 권유나 정지용과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카프의 신진 볼셰비키론자들에게 밀려나 저널리즘(생업)에 칩거하다시피 한 박팔양의 자신의 좌절감에 대한 반작용”도 구인회 가입에 영향을 주었다(송기린, 1994, 27쪽). 그러나 그는 가입 이후 두드러진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36년 7월 경 구인회를 탈퇴했다.

1930년대 들어서서도 박팔양은 계속 강연활동을 했는데, 1920년대와는 달리 그 무대가 방송으로 바뀌었고 주제도 문학에서 시사로 변화했다. 박팔양은 1932년부터 라디오 강좌를 맡았

11) 민족의 현실과 희망을 노래한 이 시는 그의 대표작으로, 그를 ‘진달래의 시인’이라고 불리게 만들었다(최삼룡, 2011, 34-35쪽).

다. 1932년 3월 2일 오후 1시 10분에 ‘졸업생의 취업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가정강좌를 했고(〈동아일보〉, 1932.3.2, 7면), 1933년 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일본농촌시찰 잠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동아일보〉, 1933.2.4, 3면), 1933년 4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저널리즘과 근대생활’이라는 주제로 상식강좌를 했다(〈동아일보〉, 1933.4.8, 3면). 그는 1933년 9월 말에는 오후 2시에 ‘신문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일반 가정에서의 신문에 대한 이해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방송 강연을 했다(〈조선일보〉, 1933.9.28, 부록 4면). 박팔양의 방송 강연에 대해 “연단에 서서 연설하듯 구절구절 똑, 똑 떼여서 퍽이나 차근차근하게 넘긴다”는 평가가 나왔다(〈삼천리〉, 1934.11, 122쪽). 총독부 통제 하에 놓인 방송에서 비판적 내용을 강연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나름대로 계몽적인 내용의 강연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문예강연도 계속해 1935년 2월에는 구인회 주최, 〈조선중앙일보〉 후원의 문예강좌에서 ‘조선 신시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조선중앙일보〉, 1935.2.19, 2면). 1936년 4월에는 중앙기독교청년회 주최의 ‘화요강단’에서 ‘농촌과 문예’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동아일보〉, 1936.4.21, 1면).

박팔양이 근무하던 〈조선중앙일보〉는 1936년 9월 4일에 자진휴간을 했다. 〈조선중앙일보〉도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사진에서 일장기를 말소했는데, 〈동아일보〉와 달리 총독부의 눈에 띄지 않아 그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조선중앙일보〉는 ‘근신을 표하는 의미의 자진휴간’을 했다. 그러나 총독부의 징계 의도와 내부의 알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복간되지 못했다(설화자, 1937, 80-81쪽).

4. 만주 시기(1937-1945) : 만주국 기관지 〈만선일보〉 입사

박팔양은 〈조선중앙일보〉의 휴간 이후 한 동안 별 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1937년 3월 10월에 〈만몽일보〉에 입사하기 위해 만주의 신경으로 떠났다(〈매일신보〉, 1937.3.10, 2면). 〈조선중앙일보〉가 복간되지 못하면서 기자들은 제각기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났다. 〈조선중앙일보〉 기자들의 상당수는 아예 언론계를 떠났고, 서강백, 이정순, 마태영, 박윤석은 〈매일신보〉로 옮겼고, 윤석중은 〈조선일보〉로 이직했으며, 박팔양과 이태우는 〈만몽일보〉에 입사했다(〈비판〉, 1938.8, 24-28쪽). 윤석중의 경우 〈소년〉잡지의 편집자로 〈조선일보〉로 옮길 수 있었지만(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2004, 52-521쪽), 〈조선중앙일보〉 퇴직자들이 기자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와 만주의 〈만몽일보〉밖에 없었다. 박팔양은 그중에 〈만몽일보〉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박팔양이 만주의 신경으로 떠난 데는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했다. 조영복(2007)은 “당시 문인들의 만주행은 다양한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만주가 조선 내에서의 생활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빈곤의 저항에 덜 부닥치게 했고 정신적으로는 정신의 망명객으로서의 자유를 조금은 맛볼 수 있었다는 데”(196쪽)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의도는 박팔양에 앞서 1936년 3월 <만몽일보> 입사차 만주로 떠났던 염상섭의 회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때의 M(만몽일보: 인용자)지는 그야말로 백만 재만 동포의 표현기관이요, 복지와 문화적 향상을 위하여는 물론이요 당장 아쉬운 고비에는 “여기 나 있노라”라고 외마디 소리라도 칠 수 있고, 떳떳이 할 말은 하여야 할 창구명으로서라도 그 존재가치는 실로 중한 것이었다. 여하간 그때의 감독기관인 관동군 보도부에서 보낸 일인 주간의 날카로운 감시를 받아 가면서 신문의 제호부터 고치고 인재들을 끌어들이 내 댐에는 지면을 쇠신하여 놓았었다(염상섭, 1987, 232쪽).

박팔양은 먼저 <만몽일보>에 입사했던 염상섭이 불러서 갔을 가능성이 높다. 둘은 모두 문인기자로서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까지는 <조선일보>에서, 1932년 10월에는 <중앙일보>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을 갖고 있다. 1933년 8월 25일에 창간된 <만몽일보>는 선우일의 <간도일보>와 합쳐 1937년 10월 21일에 <만선일보>로 새로 출범했다(정진석, 1989, 258-260쪽). <만선일보>는 만주국 만주홍보협회 통제아래 창간된 만주국 기관지였다. 김을한(1989)은 <만선일보>에 염상섭, 박팔양 등이 활동한 것에 대해 “총독부의 황민화 정책에 반발해서 만주로 도피해 온 문화인들이 다수 참가해서 일시는 뜻밖에 호화진용을 이루기도 하였다”(243쪽)고 평가했다.

박팔양은 <만몽일보>에 이어 <만선일보>에서도 계속 근무했다. 박팔양은 <만몽일보> 시절에는 편집부장을 맡았었다. <간도일보>에 있다가 통폐합되면서 <만선일보>로 옮겨 온 인수길은 당시에 박팔양이 사회부장 겸 학예부장을 맡고 있었다고 회고했다(안수길, 1978, 368쪽). 박팔양은 1938년 10월 경에 <만선일보> 편집부장이 되었고(<삼천리>, 1938.11, 15쪽), 얼마 뒤에는 사회부장을 맡았다(<삼천리>, 1938.12, 20쪽).

<만선일보> 기자였던 인수길(1983)은 박팔양에 대해 “시인으로 선미다분(禪味多分)하다”(234쪽)고 하여, 그가 마치 속세를 떠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고, 염상섭을 대신해 사실상의 편집국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38년 8월에 박팔양을 <만선일보> 편집국장이라고 표현한 기사도 있다(<동아일보>, 1938.8.14, 1면). 그가 사실상 편집국장의 역할을

하던 시절의 〈만선일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활동할 수 있었고, 친일적 논조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안수길, 1983, 237쪽).

그러나 1939년 말에 이르러 관동군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염상섭과 박팔양은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서 물러났다. 염상섭이 신문사를 떠난 이후 “압록강 대안(對岸)인 안동에 와서 우거” 했던(염상섭, 1987, 232쪽) 반면 박팔양은 1939년 말경 〈만선일보〉의 간도지사장을 맡았다가 (〈만선일보〉, 1939.12.2, 석간 1면), 1939년 말 또는 1940년 초 무렵에 〈만선일보〉를 퇴사해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 홍보과로 직장을 옮겼다.¹²⁾ 협화회는 만주국이 ‘민족협화’를 명분으로 만든 어용기관이었다. 1930년대 말에 협화회가 조선인의 참여를 강화해가면서 본부에 조선인 직원들을 많이 뽑았는데(신규섭, 2004, 115-116쪽), 박팔양도 이 시기에 입사했던 것이다. 1940년 가을 협화회의 조선인 직원은 부원, 촉탁 등을 포함해 100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중앙본부나 각 지역본부에서 활동했는데, 박팔양은 촉탁으로 중앙본부 홍보과에서 근무했다(〈삼천리〉, 1940.10, 17쪽).

박팔양은 1940년 초에 쓴 ‘일가언 한담객설’(一家言 閑談客說)이라는 글에서 “만주서도 조선문으로 된 잡지 하나쯤은 만주 우리인사의 손으로 내임직한 때가 되었는데” 하고는 “타계 만주 국민에 대한 면목상 문제로도 그렇거니와 우선 자신의 문화로서도” 필요하다고 했다(〈만선일보〉, 1940.1.31, 석간 1면). 박팔양은 조선인들의 의사표현 수단이자 작품발표 공간으로 잡지 출간을 의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1940년 6월부터 신경에서 월간잡지 〈대지〉를 발행하기로 했는데.¹³⁾ 송지영이 편집책임을 맡고, 박팔양, 백석, 이갑기, 박영준 등이 필자로 참여하기로 했다(〈동아일보〉, 1940.4.12, 3면).

박팔양은 1940년 4월에 최초의 시집인 〈여수시초〉를 발행했는데, 백석은 〈만선일보〉에 ‘독후감’을 쓰며 박팔양에 대해 “이러한 높고 참되고 겸손한 시인”이라고 평가했다(〈만선일보〉, 1940.5.10, 석간 4면). 박팔양에게는 〈만선일보〉에 근무할 때부터 퇴사 이후 협화회 본부로 옮긴 이후 한 동안까지 친일적인 글을 쓴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백석이 박팔양에 대해 높이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뒤인 1940년 9월에 박팔양이 창씨개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12) 안도현(2014)은 1940년 2월에 박팔양이 〈만선일보〉 기자와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 홍보과 일을 겸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222쪽).

13) 〈대지〉의 실제 발행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대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 실물은 찾을 수 없다 (<http://blog.naver.com/maenam111?Redirect=Log&logNo=90151842081>(2017.7.10.))

협화회 중앙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시인 박팔양 씨는 금번 깨달은 바 있어 ‘水原一夫’로 창씨하였는데 “그 많은 옥편속 글자 중에서 시인께서는 어찌하여 하필 ‘水原’ ‘一夫’자를 골랐소?” 묻은 즉 씨 가로대 “나의 고향은 수원(水原)이요 이름을 일부(一夫)라고 한 것은 내 일찍이 농가에서나 농부였던 까닭이요(〈만선일보〉, 1940.9.7, 3면).

〈만선일보〉는 박팔양이 창씨개명한 것에 대해 “천 마리 닭보다 한 마리 학”이 창씨개명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만선일보〉, 1940.9.10, 3면). 조선에서는 1940년 8월 10일까지 기한을 두고 강요하여 9월 20일 현재 전체 인구중 77.2%가 창씨개명을 하였다(김동호, 1990, 297쪽). 만주에서는 1941년부터 창씨개명이 강요되었고, 그에 앞서 유명인들을 앞세워 창씨개명을 유도하려고 했는데 그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 박팔양이었던 것이다. 박팔양의 만주에서의 위상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박팔양이 창씨개명을 하자 가깝게 지냈던 백석은 실망했고, 이 시기에 민주국 국무원 경제부를 그만두고 만다(김응교, 2017, 166-170쪽). 창씨개명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팔양이 쓴 글을 보면, 대단히 자조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다.

나는 철학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까지 글을 쓰지 않은 이유도 이곳에 있다. 물론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내게 문필적 기교가 썩 훌륭하다든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의미의 생활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진리를 말하겠는가 하는 말이다. 소설도 시도 모두 있는 그대로의 생활의 묘사가 아니라 생활의 이상을 위하여 꺾박한 현실적 운명에 대하여 해설하려는 자의 수난과 악전하는 모양을 보라. 더 높은 창조적 생활의 위에서 관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한 생활정신을 잃어버린 나와 같은 것은 도저히 글을 쓸래야 쓸 수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닌가. “되는 대로” 살지. 이것이 최근의 나이다(〈만선일보〉, 1940.10.26, 1면).

이 글처럼 박팔양은 이 시기에 거의 글을 쓰지 않았다. 최초의 시집인 〈여수시초〉를 발간하면서 정작 시를 쓰지는 않았다. 또한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강연활동도 하지 않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화회에서 일을 하고 창씨개명까지 했지만, ‘되는 대로’ 산다는 자조적인 심정으로 살아갔던 것이다.

앞서 창씨개명을 하며 고향인 수원(水原)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은 비록 창씨개명은 하지만 자신의 뿌리는 잊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¹⁴⁾ 그러나 박팔양은 정작 ‘水原一夫’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듯하다. 1943년에 간행된 〈반도사회와 낙토만

주)¹⁵라는 책의 서문을 쓰면서는 ‘靑木一夫’(아오키 카츠오)라는 성명을 사용했다. ‘水原’ 대신에 ‘靑木’이라는 성을 사용했고, 이름만은 그대로 ‘一夫’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박팔양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때는 바야흐로 대동아전쟁이 아소향무적(我所向無敵)의 일본군의 세기적이고 이적(異的)인 대승리중(大勝利中)에 착착 그 성과를 거두고 동방공영(東方共榮)의 성역이 하루하루 개가(凱歌) 속에 이루어지는 오늘 그 북변(北邊)의 수호성(守護城)인 아만선(我滿鮮)에 관한 이 문헌이 상재(上梓)됨이 어찌 우연이라 한 개의 숙명이요 필연이라고 할 장거(壯舉)임에 틀림이 없다(박팔양, 1943).

위의 책 제자(題字)를 만주국 총리가 쓰고, 서문은 만주국 특임참의, 윤치호(전 연희전문교장), 유진오(보성전문 법과 과장) 등이 썼다. 이들과 함께 이 책의 서문을 쓴 것은, 그가 사실 상 만주 한인들을 대표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만주에서 활동하던 인물 중에 그보다 더 연장자이거나 높은 직위의 인물들이 적지 않았고, 그가 <만선일보>나 협화회에서 활동하면서도 친일적인 글을 거의 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대표로 친일적인 내용의 서문을 쓴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마 그가 협화회 중앙본부 홍보 담당자로서 책 발행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⁶ 그는 광복될 때까지 계속 협화회에 근무했다.

5. 북한 체재와 <로동신문>에서의 활동

광복 후 박팔양은 만주를 떠나 신의주에 정착했다. 그는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월북’한 사람들과는 달리 ‘만주’에서 살다가 ‘이주’한 것이었다. 남한 출신으로서 친일 전력도 있는 그가 북한에 머

14) 그는 좌담회에서 “나고 자란데 가서 꼭 죽어야 된다면 그런 부자유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은 “그저 구름 따라 바람따라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 아무데서나 죽는 것을 원할 따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박팔양 외, 1940, 168쪽). 이렇듯 ‘도가적’ 분위기를(최상룡, 2011, 44쪽) 물씬 풍기는 얘기를 하던 박팔양은 불과 몇 달 뒤에 창씨개명하며 자신의 고향인 ‘수원’을 성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15) 남창룡(2000)은 이 책의 구성과 필자들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에서 PDF파일로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16) 박팔양은 서문에서 이 책의 발행인인 홍병철을 ‘외우’(畏友)라고 표현하고 있다(박팔양, 1943).

무르게 된 동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¹⁷⁾ 남한에서 조직 활동을 하다 미군정에 실망하고 월북한 인물들과¹⁸⁾ 달리 처음부터 북한에 머무르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로서는 이상을 추구하는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945년 9월 말 경에 신의주에 온 박팔양은 <평북신보>와 평안북도 도당 위원회 기관지 <바른말>의 편집국장을 맡았다(송기런, 1994, 32쪽). 이와 북한에 체재하기로 했다면 평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에게 그런 연줄은 없었다.

그는 1945년 11월 말에 학생의거 사건 때문에 신의주를 방문한 김일성을 만났고, 그 인연으로 이듬해인 1946년 3월에 <로동신문>의 전신인 <정로> 편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¹⁹⁾ 김일성은 박팔양의 친일 전력을 듣고 “한때 잘못 산 경력보다 민족성을 지키려는 그의 애국심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며 중앙당 기관지 편집국장으로 그를 불렀다고 한다(<로동신문>, 2006.1.27). 당시 북한에는 “파벌을 반영하는 자리 배분”이 이루어졌는데, <정로>의 주필은 소련파인 태성수, 부주필은 연안파인 유문화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편집국장은 국내파인 박팔양이 맡았다(이청원, 1989, 203쪽). 물론 박팔양의 오랜 언론인 경력도 그를 편집국장으로 발탁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로>는 1945년 11월 1일에 창간된 북조선 공산당 기관지였는데,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해 조선노동당으로 출범하면서 조선신민당 기관지 <진진>을 흡수해서 1946년 9월 1일부터 <로동신문>이란 제호로 발행되었다. 박팔양은 <로동신문>에서는 부주필을 맡았다. 일제강점기에 개벽사와 <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했던 김원주도 월북해 1949년 말에 <로동신문> 편집원이 되었는데, “이 발령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긍지는 컸다”고 말했을 정도로 북한에서 <로동신문> 기자의 사회적 위상은 대단히 높았다(성혜량, 2000, 166쪽).

17) 그가 신의주에 오게 된 데는 시인 안용만 등과의 인연과 기자로서의 경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있다(송기런, 1994, 32쪽; 김낙현, 2002, 262쪽). 안용만은 1935년에 <조선중앙일보> 현상 공모에 시가 당선되었는데 당시 선자가 박팔양이었다(송희복, 1990, 205쪽). 안용만은 신의주에서 신문 창간에 관여했고, 조선공산당 평안북도 도당 기관지 <바른말>에서 활동하기도 했다(이상숙, 2016, 119쪽). <로동신문>은, 그가 신의주에 온 것은 1945년 9월 말이었으며, 최초에는 서울행 기차를 탈 생각이었다가 “미군이 남조선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식민지 노예생활을 다시는 할 수 없다”는 판단과 “민주일편에 소문이 자자하던” 김일성에 대한 ‘호모심’으로 북한에 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로동신문>, 2006.1.27.). 물론 박팔양과 그의 양아들로 비전향 장기수였던 박문제의 2대에 걸친 ‘애국과 신념’을 선전하는 <로동신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18) 여지선(2016)은 설정식의 월북에 대해 “미군정에 대한 실망은 자연스럽게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에 대한 경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월북은 실망과 기대가 뒤섞인 선택이었다”(377쪽)이었다고 주장했다.

19) 박팔양이 맡았던 직책이 ‘편집부장’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편집국장’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다. 그의 경력을 정리한 최근의 자료인 <조선대백과사전>에 편집국장으로 나와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편집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정리했다(백과사전출판사, 1999, 351쪽).

1947년에 <로동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소설가 김학철은 박팔양을 만났다고 하며,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로동신문사에는 당시 이색적이라면 이색적인 인물 둘이 있었다. 그 하나는 시인 박팔양이고 또 하나는 소문난 만담가 신불출이었다. 박씨는 주로 문예면을 맡았고 또 신씨는 만화잡지 <화살>의 편집위원이었는데, 나는 젊으면서도 좀 허례적인 박씨보다는 바람기가 다분히 있는 신씨와 더 잘 어울렸다. 그의 성품이 워낙 소탈했기 때문이다. 신불출씨는 ‘동무 따라 강남 가기’로 괜히 38선을 넘어왔다가 그 생동하고 재치 있던 ‘만담’은 냉혹한 이념에 지지눌려 질식사를 해버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감시와 천대 속에 말라비틀어졌다(김학철, 1995, 320쪽).

박팔양에 대한 부정적 태도 때문이었겠지만, 김학철은 박팔양이 ‘감시와 천대 속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학철의 주장대로라면, 박팔양은 부주필이면서도 학예면을 담당했던 것이다. <로동신문> 주필은 태성수에서 1948년 3월에는 기석복으로 바뀌었고, 기석복은 1950년 말까지 재직했다(정진석, 2012, 88-89쪽). 박팔양은 기석복 주필 밑에서도 한동안 부주필로 활동했던 듯하다. “지난 낡은 사회에서 글을 쓰던 지식층”으로 인해 ‘부르조야 신문’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리용필, 1993, 247쪽) 소련 출신의 인물들이 <로동신문>을 주도했고 남한 출신으로 친일 전력까지 있던 박팔양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박팔양은 1949년 9월부터는 김일성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어문학부 신문학과 초대 강좌장’으로 ‘기자 후배’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했다(<로동신문>, 2006.1.27). 1949년 9월 1일에 김일성대학의 체제가 개편되면서 조선어문학부에 기존의 조선어학과와 조선문학과 외에 신문학과가 신설되었고(신효숙, 1998, 210-211쪽), 박팔양이 신문학과 초대 강좌장이 되었던 것이다. 광복 이후 북한에 많은 신문들이 생겼지만 기자들은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신문학과를 만들어 기자 양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서는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에서 강연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강의가 아주 낮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박팔양은 중군작가로 활동하며, <조선인민보>에 1950년 8월 5일부터 4회에 걸쳐 ‘중군기’를 실었다.²⁰⁾ 박팔양은 자신의 고향인 수원에서 시작해 평택, 초치원을 거쳐 대전까지 북한군과 동행했는데, 중군기에서 그는 북한군의 활약상을 치켜세우며 미군에 대

20) 1950년 8월 5일에 1회, 6일에 2회, 9일에 3회, 10일에 4회가 실려 있다.

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팔양은 대전까지 갔다가 돌아와 잠시 서울에 머무르며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화가 김용환(1983)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다가 ‘인민군 전선 사령부 문화훈련국’에 배속되어 만화를 그렸는데, 그곳에서 소좌 계급장을 달고 있는²¹⁾ 박팔양을 만났다고 한다(145-146쪽).

박팔양은 한국전쟁 이후에는 다시 언론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동안 김일성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문학단체에 참여하며 시인으로 활동했다. 광복 이후부터 1967년까지 북한에서 그가 쓴 시는 “현실주의 서정시편과 더불어 선전선동시와 정론지, 기행시, 집체시, 서정 서사시” 등이었는데(송기륜, 1994, 34쪽), “현실에 안주하고 이념과 체제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였다(최삼룡, 2011, 50쪽). 그는 1968년에 숙청을 당하여 15년 가랑 활동하지 못했다.²²⁾ 그도 남한 출신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그는 남한 출신 문인 중에는 아주 드물게 1982년에 복권되어 다시 활동하다가 1988년에 세상을 떠났다(최삼룡, 2011, 55-56쪽). 그가 복권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양자로서 비전향 장기수였던 박문재와의 관계가 감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박팔양은 1924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이후 <조선일보>, <중외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를 순서대로 거치며 일제강점기의 거의 모든 한글신문에서 활동했다. 신문사들의 경영부실이나 내분이 영향을 주었고 부당한 현실에 눈감지 않았던 박팔양의 성향도 작용해 여러 신문사를 옮겨 다녔던 것이다. 그는 결국 1937년에는 만주로 건너가 <만선일보>에서 근무했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북한으로 가서 <로동신문>에서 활동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 사무취급을 잠시 맡았던 것을 제외하면, 1930년까지는 주로 사회부 기자로 식민지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취재보도 활동을 했거나 편집부 기자로 한글의 우수성을 살리는 편집자로 활동했다. 그는 이 시기에 계급주의적 시를 쓰며, 활발한 단체참여와 강연활동을 하기도 했다. 일제의 통제가 강화된 1930년대 이후에는 <중앙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서만 5

21) 종군작가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소좌계급을 달아주었다고 한다(정진석, 2012, 138-139쪽).

22) 그의 숙청에 대해 “협화회 경력이 들통났다는 설도 있고 주체문예이론을 반대했다는 설도 있었다”고 한다(최삼룡, 2011, 55쪽).

년 동안 재직하며 사회부장으로서 사회면이 비교적 비판적 보도를 하는 데 기여했다. 사회부 및 편집부 기자로서의 그의 오랜 경험과 언론의 비판적 역할에 대한 그 나름의 문제의식이 결합된 결과였을 것이다. 그는 비판적 언론활동이 쉽지 않던 1930년대에 시를 쓰거나 강연활동을 하며 소극적이거나 비판과 계몽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가 1937년 만주로 갔던 것은, 이왕이면 조선보다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곳에서 기자생활을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만주국 기관지 <만선일보>의 사회부장으로서 실질적인 편집국장 역할을 하면서도 친일적 논조가 노골적이지 않은 신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만선일보>에 친일적 글을 거의 쓰지 않았지만, 퇴사 후 협화회 홍보부에 근무하여 친일 경력을 남겼다. 광복 후 북한으로 갔던 것은 친일 경력을 상쇄하고자 하는 이상의 추구였을 수 있다. 북한에 가서 북조선 공산당 기관지 <정로>의 편집국장,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의 부주필을 맡았지만 언론인으로서 제대로 활동하지는 못했다.

박팔양은 문인기자 중에서도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강했던 인물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1920년대 내내 “성의있게 기민하게 그리고 기자로서의 인격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박팔양, 1927b, 30쪽). 1937년의 ‘만주행’이나 1945년의 ‘북한행’도 계속 언론활동을 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된 결과였다. 만주로 갔던 남한 출신 언론인 중에 광복 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으로 갔던 것도 매우 특이한 경우였다. 그의 시가 주로 식민지 현실을 주제로 삼아, “대상을 ‘객관적 입장에서 노래’하면서도 서정적 주인공과 시인 자신의 심장을 융합”시킬 수 있던 것도(류만, 1995, 74쪽)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했던 시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었다.

박팔양은 좌와 우, 항일과 친일, 남과 북, 숙청과 복권 등 식민지와 분단체제 속에서 파란만장하고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다. 일제강점기의 문인기자는 물론 전체 언론인 중에서도 그만큼 식민지와 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은 인물이 많지 않다. 그가 재직했던 <동아일보>, <만선일보>, <로동신문> 세 신문의 이름만으로도 그의 삶이 얼마나 크게 요동쳐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만주국 기관지 <만선일보>와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그는 ‘친일’과 ‘월북’이라는 두 가지 명예를 짊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를 ‘북한에서 초기에 활동한 친일파’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동시에 역사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팔양이 기지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도 식민지 현실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저항하는 활동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그를 어떤 시기나 시대의 흐름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어떤 분야의 활동에서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고, 필화나 조직 활동으로 투옥을 당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당시에 고요하고, 겸손하며,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았다(송기련, 1995, 33쪽). 이런 성격이 그의 활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그는 소극적인 면모를 보이기는 했지만, 어느 시기에도 언론인이자 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그는 기자시절은 물론 부장으로서도 비판적 언론활동을 계속했고, 시인으로서도 식민지 현실을 넘어서는 미래의 희망을 얘기했다.

‘만주행’으로 인한 친일 논란이나 ‘북한행’으로 인한 이념 문제 때문에 식민지 시기 그의 활동이 지니는 의미가 퇴색한 감이 없지 않다. 기자로 계속 활동하기를 꿈꾸었던 그에게 만주행이나 북한행은 모두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이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는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던 것이다. 박팔양의 언론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언론인이 소신껏 활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박팔양의 파란만장한 삶을 재구성하는 데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탓인지 문학분야에서 이루어진 박팔양에 대한 모든 연구들이 그의 만주행이나 북한행에 대해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았다. 역사적 맥락과 개인의 생애를 연결해 설명하기에 너무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박팔양에 관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심층적 해석을 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진호 (1996). 사회적 신념과 추상적 계몽주의-박팔양의 '정열의 도시'론. <상허학보>, 3집, 375-391.
- 京鍾警高秘 12162호의 1 (1925.10.26). 朝鮮日報社ノ狀況ニ關スル件.
- 京鍾警高秘 9592호 (1927.8.29.). 三八青年會臨時總會ノ件.
- 京鍾警高秘 9595호(1927.8.29.). 鐵筆俱樂部主催ニ係ル故朴純秉一周忌追悼會ニ關スル件.
- 계훈모 (1979). 『한국언론연표』 I. 서울: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 관상자 (1932). 1인 1화 신년 지상 대원탁회. <혜성>, 1932년 1월호. 116-120.
- 김낙현 (2002). 박팔양론. <어문연구>, 30권 2호, 257-280.
- 김동호 (1990). 일제하의 창씨개명. <친일과, 그 인간과 논리>(286-312쪽), 서울: 학민사.
- 김용환 (1983). <코주부 표랑기>. 서울: 용성출판.
- 김은철 (1998). 관념주의 그리고 뉴 콤플렉스- 박팔양 시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2권, 55-80.
- 김을한 (1989). <김을한 회고록-인생잡기>. 서울: 일조각.
- 김응교 (2017). 신경에서 지낸 백석. <외국문학연구>, 65호, 149-174.
- 김재홍 (1990). <카프시인 비평>.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팔봉 (1978). 기자물 안 들려고 애쓴 18년. <언론비화 50편>,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209-223쪽.
- 김팔봉 (1988). <김팔봉 문학전집 II>.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학철 (1995). <김학철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구기자 (1928). 글 배운 것이 죄. <별건곤>, 1928년 8월호. 52-55.
- 남기혁 (2009). 1920년대 시에 나타난 도시 체험. <겨레어문학>, 42집, 211-250.
- 남창룡 (2000). <만주제국 조선인>. 서울: 도서출판 신세림.
- 대한언론인회 (1992). <한국언론인물사화> 8.15전편 상·하. 서울: 대한언론인회.
- 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동아일보사사> 권1. 서울: 동아일보사.
- 류 만 (1995). <조선문학사> 9. 평양: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 리용필 (1993). <조선신문 100년사>. 서울: 나남.
- 박현호 (2006). 식민지 조선에서 작가가 된다는 것-근대 미디어와 지식인,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7집, 107-140.
- 박영희 (1989). 초창기의 문단 측면사.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시대에 대한 회고와 문학사>(345-416쪽), 서울: 대학사.
- 박용규 (1996). 일제하 시대.중외.중앙.조선중앙일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2호, 부산대 언론정보연

- 구소, 109-148.
- 박용규 (2005). 식민지 시기 문인기자들의 글쓰기와 검열. <한국문학연구>, 29집, 79-120.
- 박용규 (2009).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 <언론과학연구>, 9권 4호, 277-312.
- 박중화 (1979). <월탄 박중화 회고록>. 서울: 삼경출판사.
- 박팔양 (1927a). 문필노동자 잡감. <문예시대>, 1927년 1월호, 190-193.
- 박팔양 (1927b). 3대 사건에 고심하던 이야기. <별건곤>, 1927년 1월호, 29-31.
- 박팔양 (1927c). 의분.공분.심담(心膽).구상(俱爽).통쾌! 가장 통쾌하였던 일. <별건곤>, 1927년 8월호, 43-44.
- 박팔양 (1928). 내가 자랑하고 싶은 조선 것-우리들의 문자. <별건곤>, 1928년 5월호, 41.
- 박팔양 (1930). 신문문장 여시관(如是觀). <철필> 1권 1호, 15-16.
- 박팔양 (1931). 쩌벌리즘의 공과. <조선일보>, 1931.3.12, 4면.
- 박팔양 (1940). 일가언 한담객설. <만선일보>, 940.1.31, 석간 1면.
- 박팔양 외 (1940). 기초 출신 문사의 '향토문화'를 말하는 죄담회. <삼천리>, 1940년 6월호, 162-166.
- 박팔양 (1943). 서(序). <반도사회와 낙토만주>(19쪽). 신경: 만선학해사.
- 박팔양 (1990). 나는 시를 이렇게 배웠다. <나의 인간수업, 문학수업>. 서울: 인동.
- 백 철 (1975). <진리와 현실>. 서울: 박영사.
- 별건곤(1930, 5). 내가 본 나, 명사의 자아관, 61-63면.
- 백과사전출판사 (1999). <조선대백과사전> 10.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 비판(1938, 8). 구 중앙일보 사원의 근황. 24-28면.
- 삼천리(1934, 11). 방송야화. 122-124면.
- 서경학인 (1931). 휴간 중의일보론. <철필>, 2권 1호, 2-10.
- 서범석 (1978). 을축년 대홍수와 북풍회사건. <언론비화 50편>(169-192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설화자 (1937). 풍전등화의 조선중앙일보. <비판>, 1937년 2월호, 80-86.
- 성혜량 (2000). <등나무집>. 서울: 지식나라.
- 송기련 (1994). 박팔양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희복 (1990). 안용만론. <외국문학>, 25집, 200-218.
- 신규섭 (2004). '만주국'의 협화회와 재만 조선인. <만주연구>, 1집, 109-126.
- 신효숙 (1998).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계의 형성과 특징. <북한연구학회보>, 2권 2호, 195-224.
- 신문평론(1928, 9). 신문기자 명부. 49-51면.
- 신조선(1934, 5). 3대 신문 사회부장의 인물평. 44-49면.

- 嘒然子 (1931). 문사기자 측면관. <동광>, 1931년 10월호, 65쪽.
- 안도현 (2014). <백석 평전>. 서울: 다산북스.
- 안수길 (1978). 육당의 강의시간같은 편집회의. <언론비화 50편>(365-376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안수길 (1983). 용정. 신경 시대. <한국문단이면사>(229-251). 서울: 깊은 샘.
- 안지영 (2014). 1920년대 아방가르드의 분화와 균열. <한국현대문학연구>, 42집, 67-98.
- 여기자 (1932). 문인 초인상(初印象). <삼천리>, 1932년 3월호, 98-104.
- 여운홍 (1967). <몽양 여운형>. 서울: 청하각.
- 여지선 (2016). 해방기 시인 설정식과 비동일성의 에티튜드. <우리말글>, 68집, 355-381.
- 염상섭 (1931). 기자생활과 문예가. <철필>, 2권 1호, 16쪽.
- 염상섭 (1987). <염상섭전집> 12. 서울: 민음사.
- 유광열 (1932). 신문기자 군상. <신동아> 1932년 10월호, 50-55.
- 유광열 (1969). <기자반세기>. 서울: 서문당.
- 유성호 (1989). 여수 박팔양 시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성호 (2009). <박팔양 시선집>, 서울: 현대문학.
- 유성호 (2013). 현실성과 서정성의 통합적 발화-박팔양론. <수원역사문화연구>, 3호, 5-28.
- 이광수 (1940). '단중애사'와 '유정'. 이력저력 20년간에 10여 편을. <삼천리>, 1940년 10월호, 183- 184.
- 이상길 (2010). 1920~1930년대 경성의 미디어 공간과 인텔리겐치아-최승일의 경우. <언론정보연구>, 47권 1호, 121-169.
- 이상숙 (2016). 안룡만 연구 시론. <한국시학연구>, 47집, 115-149.
- 이청원 (1989). 박팔양론: 휴머니즘의 역사적 전개. <월북문인연구>(200-211쪽). 서울: 문학사상사.
- 이태준 (1988). <이태준 전집> 2. 서울: 깊은 샘.
- 일본전보통신사 (1926). <신문총람> 1926년판, 일본전보통신사.
- 임성모 (1997). 만주국 협회회의 총력전체제 구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 신 (2006). 1924년 동아일보 개혁운동과 언론계의 재편. <역사비평>, 75호, 242-272.
- 전명혁 (2007).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 연구>. 서울: 선인.
- 정진석 (1989). 만주의 한국어 언론사 연구. <관훈저널>, 47호, 247-268.
- 정진석 (2012).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서울: 소명출판.
- 정태철 (1931). 친구 양 간부의 세력전으로 문제 많은 조선일보사. <별건곤>, 1931년 10월호, 20-21.
-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2004).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편.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 조영복 (2007).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대 '활자-도서관'의 꿈>. 서울: 살림출판사.

- 조용만 (1971). 9인회 시절의 교우록. <세대>, 1971년 4월호, 336-346.
- 주성하 (2013). 너무나 유치한 북한 초대 내각 친일파 특세론(144).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65108>((2017.6.8.)).
- 채수영 (1990). 암흑시대와 정신변용-박팔양론. <한국문학연구>, 13집, 273-299.
- 청 광 (1931). 세 동채 가는 중앙일보의 신진영. <동광>, 1931년 12월호, 84-85, 106.
- 최상룡 (2011). 박팔양의 두 얼굴과 그 표정. <세계한국어문학>, 5집, 27-64.
- 최윤정 (2015). 박팔양 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권 1호, 345-365.
- 최은희 (1935). 여기자 회상록. <개벽>, 1935년 3월호, 51-57.
- 최은희 (1969). 추억의 날개를 펴고. 추정선생 전기편찬위원회. <추정 임봉순선생 소전> (151-156쪽). 서울: 추계학원 재단사무소.
- 추선진 (2011). 지은이에 대해. <박팔양 시선>(113-117쪽).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태성수 (1947). <민주출판물의 발전을 위하여>. 평양: 로동신문사.
- 혜성(1931, 7). 조선 신문기자론과 평. 58-67면.
- 황태욱 (1935). 조선 민간신문계 총평. <개벽>, 1935년 3월호, 13-21.

최초 투고일 2017년 10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7년 12월 4일

Abstract

Pal-Yang Park's Life and Journalistic Activity as a Writer-Journalist From Dong-A Ilbo to Rodong Sinmun

Yong-Gyu Park

Professor, Division of Media & Advertising, Sangji University

Since joining the Dong-A Ilbo in 1924, Pal-Yang Park had worked in most of the Korean language newspapers for 12 ye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e moved various newspapers because of publishing company's financial problems and his critical inclination toward unfair reality. Nevertheless, he conducted critical journalistic activities against the colonial realities as a reporter or an editor. He moved to Manchuria and worked in the Man-seon Ilbo which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Manchurian government in 1937. After the liberation, he went to North Korea and worked in the Rodong Sinmun. The names of three newspapers, including Dong-A Ilbo, Man-seon Ilbo, and Rodong Sinmun, revealed how turbulent his life had been. Due to his activities in both Man-seon Ilbo and Rodong Sinmun, he was under a yoke of pro-Japanese and defection to North Korea. He lived a turbulent life, such as leftist and rightist, anti-Japanese and pro-Japanese, South and North Korea, purge and reinstatement, in colonial Korea and divided Korea. The move to Manchuria and North Korea was an escape from a difficult reality and a journey to seek new hope. However, he experienced frustration while pursuing his ideals in the reality of colonization and division of Korea.

Keywords: Pal-Yang Park, writer-journalist, Dong-A Ilbo, Man-seon Ilbo, Rodong Sinmun